

01 교회소식

인도·네팔·홍콩·대만 선교 출장

아시아 지교회들이 이희선 목사 선교 출장 시 말씀과 손수건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로 더욱 부흥의 기반을 다졌다.

02 생명의 말씀

온유의 열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시리즈 설교, 영적인 온유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에 덕이 겸해져 있는 것이다.

03 기획특집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어요”

세상은 각종 질병과 사건, 사고로 흉흉하지만 국내외의 만민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의 공간 안에서 평안하고 강건하다.

04 간증

국내외에서 전하는 살아 계신 하나님

만민의 성도들이 안 보이던 눈이 보이고, 화재, 교통사고에서 보호받는 등 놀라운 간증을 전한다.

만민뉴스

제715호 2015년 12월 6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성령의 권능으로 초대교회처럼 충만합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실명된 눈이 보이는 등 갖가지 치료의 역사 나타나



전 세계 어디나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뜨겁게 사모하는 만민 성도들의 모습은 동일했다.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해외 선교 출장 시, 만민 전 지교회 총지도교사 이희선 목사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대신해 인도, 네팔, 홍콩, 대만 지교회 성도들을 돌아보며 영혼들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였다. 사진은 강사 이희선 목사(왼쪽)와 지교회 성도들(가운데), 네팔만민교회 새성전과 첸나이만민교회(오른쪽).

올해 미국을 비롯 중남미 페루와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지교회를 방문하여 말씀과 손수건(행 19:11~12)을 통한 권능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만민 전 지교회 총지도교사 이희선 목사와 선교팀이 최근 아시아 4개국 선교 출장을 다녀왔다.

지난 11월 10일 인천공항을 출발한 선교팀은 12일(목), 인도 델리만민교회 창립 3주년 기념예배 및 손수건 집회를 인도하였다. 권능팀의 힌디어 찬양과 전통춤 특송 뒤, 이희선 목사는 참 믿음에 대해 설교하였다. 이어 화상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환자기도를 받은 뒤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었다.

빠뿌 성도(23)는 실명되었던 오른쪽 눈에 시력이 살아나 물체를 볼 수 있게 되었고, 미누 자매(27)는 야뇨증과 신장 결석을, 사티시 형제(11)는 빈혈과 전신 부종을, 미나 데비 성도(47)는 C형 간염을 치료받는

등 수많은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델리에서 1,000km 떨어진 마하라지 칸즈 우타프라데쉬 주에서 사모함으로 참석한 지피 지가수 성도 가족은 당뇨병과 보행 장애 등을 치료받아 기쁨으로 간증하였다.

14일(토)에는 올해 강도 7.8의 대지진 속에서 196개 지·협력교회 모두 보호받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린 네팔만민교회가 새성전 입당예배와 함께 뜻깊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강사 이희선 목사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과 받은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하였다. 설교 후 이 목사의 손수건 기도로 한 여성도가 기도받고 목발 없이 걷게 되는 등 갖가지 질병들을 치료받아 영광을 돌렸다.

조셉 따망 집사(34)는 “수도승이던 아버지가 기독교로 개종하셨는데 이번 집회 시 큰 은혜와 능력을 받고 변화되어 기도생활을 시작하겠다고 하십니다.”라고 하였다.

케이비 라이 성도(36)는 “항상 자기 의견을 주장하던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뒤 온유해졌습니다. 또 고관절 통증으로 잘 걷지 못하시던 장인 어른도 이번 집회에서 온전히 치료받아 믿음을 갖게 되셨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돌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셨습니다.”라고 말했다.

15일(일), 네팔만민교회에서 열린 ‘네팔 지교회 목회자 세미나’에서는 ‘교회 성장의 비결’에 대해 증거하였고, 네팔 지교회 대표가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네팔만민교회에서는 이희선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17일(화)에는 인도 첸나이만민교회 창립 11주년 기념예배 및 손수건 집회가 있었다. 이희선 목사의 설교 후 손수건 기도로 잔시아동(9)은 소아마비로 인해 굽었던 발목이 펴졌고, 자가데시와리 성도(33)는 30년 된 중이염을, 빠빠타 자매(14)는 갑상선염

을, 인디라 집사(44)는 고혈압과 당뇨 합병증을 치료받는 등 간증이 넘쳐났다.

18일(수)에는 첸나이 목회자 만남이 있었는데, 참석한 목회자들은 ‘2002 인도 연합대성회’의 감동과 은혜를 잊지 않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특히 이번 인도 남부는 40년 만에 폭우로 인해 곳곳이 침수되고 공항도 폐쇄되며 70여 명이 사망하였지만, 선교팀이 첸나이에 도착하기 전에 태풍 경로가 바뀌고 비가 그치며 공항도 재개되어 항상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밖에도 20일(금)에는 홍콩에 있는 성도들을 심방하고, 22일(일)에는 대만만민교회 창립 23주년 기념예배 및 성령충만기도회를 인도하였다. 수개월 전부터 릴레이 금식과 기도로 집회를 준비한 대만만민교회 성도들은 영육 간에 풍성한 응답과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22~23)

온유의 열매

랍한 나무에 가지가 무성하면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여 보금자리를 짓고 쉬는 누리는 것과 같지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였지요. 모세가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의 수만 해도 60만 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을 포함하면 그 수가 족히 200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큰 권능을 보여 주어도 백성은 번번이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였습니다. 이런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은 모세의 온유함이 얼마나 승했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하였습니다.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뜻은 이 육의 세상에서 땅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에 영적인 온유함을 이룬 만큼 천국에서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넓은 땅을 소유하였어도 그것을 천국으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의 땅은 세세토록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2. 옥도에 비유할 수 있는 영적인 온유함

영적으로 온유한 마음은 바로 좋은 땅 즉 옥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악이 많으면 길가밭처럼 단단하여 진리를 받지 못합니다. 혹은 진리를 듣고 은혜를 받아도 금방 의심이 틈타서 은혜를 쏟아 버리거나 세상 것을 얻고자 은혜를 저버리지요. 그러나 이런 마음이라도 열심히 변화시키면 옥토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친 황무지라 할지라도 농부가 열심히 개간해 나가면 결국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요. 이렇게 밭의 성질이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묵은 밭처럼 굳어진 마음이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능히 개간하여 옥토가 될 수 있지요. 아무리 악이 많이 심겨 중심이 좋지 않은 마음이라도 악을 버리다 보면 결국 고운 마음으로 바뀝니다. 거친 마음 즉 상대와 걸리고 원수를 맺고 시기, 질투, 다툼이 있는 좋지 못한 마음도 변화시키면 온유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 해서 저절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자신의 노력이 따라야 하지요. 쉬지 않고 불같이 기도하며 범사에 어찌하든 진리로 생각하고 진리로 말하고 진리로 행하고자 애써야 합니다. 몇 주, 몇 달만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굳은 의지로 마음을 지켜야 하지요. 이런 의지와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은혜와 능력을 주시며 성령도 도와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옥토로 개간하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들도 맺어나갑니다. 특별히 온유의 열매는 마음밭을 개간하는 것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험기, 미움, 시기, 욕심, 다툼, 들뜸 등을 뽑아내지 않으면 온유해질 수 없고 못 영혼들이 그 마음에 깃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다른 성령의 열매들보다도 더욱 성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온유함을 이루면 심는 대로 열매를 거두는 옥도밭처럼 구하는 것마다 속히 응답받으며, 성령의 음성도 밝히 들어 범사에 형통함을 받게 됩니다.

3. 덕을 겸비한 영적인 온유함의 열매

먼저, 덕은 반듯하고 위엄이 있으며 절도 있는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분별없이 순하기만 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없고, 오히려 무시를 당하거나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반면에 덕과 온유를 겸비한 사람은 내면에 공명정대한 기준을 갖고 있기에 옳고 그름을 정확히 분별하여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정화하실 때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외식을 책망하실 때는 단호하게 강한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꺾져가는 삼지를 꺾지 않는 부드러운 마음이지만 책망해야 할

때는 호되게 책망하셨지요. 그런 단호함과 의로움이 내면에 있는 사람은 언성을 높이거나 엄하게 하지 않아도 못사람들이 그를 경솔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주의 교양이나 온전한 몸의 행실과도 연관됩니다. 덕 있는 사람은 말 한마디에도 무게가 있어 무익한 말이나 헛된 말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복장도 때와 장소에 적합하게 갖추어 줄 알고 표정도 무뚝뚝하거나 차가운 것이 아니라 부드럽습니다. 진정 덕을 겸비한 온유함의 열매는 모든 것을 반듯하게 하되 동시에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여 편하게 해 주는 마음 씀씀이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덕은 마음을 넓게 쓰는 긍휼과 자비의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곤고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아 위로하고 은혜를 입혀 줍니다.

가령, 핍박 중에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성도를 보면 마음으로만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고 상황을 살펴 구제하며 힘을 주지요. 이처럼 온유한 마음이 덕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상대에게 은혜와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나는 타고난 성품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혹여 핑계를 대지는 않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격이나 마음 중심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리 험기가 많고 들레는 성품이나 자기중심적이고 의가 강한 성품이라도 악을 버리고 마음을 개간하면 온유하고 덕스러운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품도 얼마든지 담대하고 활달하게 변화되어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마음밭을 개간하여 탐스러운 온유의 열매를 맺으시고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선지자와 같이 많은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횡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4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녀오실 때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공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시 우송료만은 정가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253-985877 (예금주 이경진)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다. 어떤 의학적 치료 없이도 권능의 기도로 난치병, 희귀병, 불치병을 치료받고 불구 등의 연약함을 해결받을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각종 질병뿐 아니라 사고나 재앙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다.

“청력을 회복하니 삶이 더욱 즐겁습니다”

10여 년 동안 오른쪽 귀에 이상이 있었는데 의사는 제가 청력을 40%나 잃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였지요.

저는 한국에 가서 만민중앙교회 하계수련회에 참석한 성도들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치료받은 간증을 대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수련회에 참석하여 치료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올해 3월, 주일 대예배 시 ‘온전한 심일조와 헌물’에 대한 설교를 들던 중 예전에 주택 구입을 위해 용자받은 금액에 대한 심일조를 드리지 못한 것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수련회 참석을 위해 준비해 놓은 2,000유로(약 280만 원)를 즉시 심일조로

드리고, 부족한 심일조는 내년에 만기되는 적금을 받아 드리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8월 초, ‘2015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한 저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수련회 첫날, 당회장님의 전체를 위한 환자기도를 받던 중 양 귀와 배 부분에 여러 번 성령의 불을 받아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후 안 들리던 귀가 잘 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대화할 때도 잘 들리고, 음악도 잘 들을 수 있게 되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니 얼마나 행복한지요.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파브리스 플랑드르 집사
(47세, 벨기에 에노만민교회)

“피부를 잘라내야 했던 손가락 염증이 3일 만에 치료되었어요”

올해 5월, 오른쪽 엄지손가락 밑에 염증이 생기더니 한 달이 지나도록 낫지 않았습니다. 손톱 밑에서 나온 진물은 두터운 층을 이루고 급기야 손톱 안까지 염증이 번져 손톱이 빠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직업이 약사이니 약을 조제하고 처방전과 관련하여 글도 써야 하는데 애로 사항이 참으로 많았지요. 7월 말, 견디다 못해 피부과에 갔더니 의사는 손톱 밑의 피부를 자르고 새살이 오를 때까지 6개월 이상 냉동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기하게

도 통증은 없었지만 약을 다룰 때나 집안일을 할 때 손을 사용할 수 없어서 매우 불편하였고 마음 또한 힘들었지요.

그런데 8월 초 수련회에 참석하여 첫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전체를 위한 환자기도를 받은 다음 날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지손가락 손톱 아래 부위에 무언가 느낌이 오더니 딱지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틀 후에는 두텁게 남아 있던 딱지마저 완전히 떨어져 아팠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지요. 당회장님의 기도로 3일 만에 완치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혜옥 집사
(51세, 1대대 9교구)

“고질적인 비염을 치료받아 날아갈 것 같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비염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코가 막히니 자연히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이 생겼고, 그러니 식사할 때조차 숨이 찼습니다. 늘 코 멍멍한 소리 때문에 정확한 의사진단이 쉽지 않았고, 주변에는 놀려 대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치료받은 성도들의 많은 간증을 듣고 보았지만 제 마음에 와 닿지는 않았습니다. 교회에는 다녔지만 친구들과 어울려 게임하고 노는 것이 훨씬 좋았기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조차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8월 초 ‘2015 만민 하계수련회’를 앞두고 고등학생으로서 마지막 수련회이니 꼭 참석해야겠다는 마음과 함께 ‘나도 성도님들처럼 꼭 치료받고 싶다.’는 사모함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기쁨으로 자원봉사를 신청하였고 수련회 전날부터 선발대로 가서 짐 나르기, 청소 등 내내 행복하게 봉사하였습니다.

8월 3일, 수련회 첫날 당회장님께서 교육 후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해 주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받던 중 제 콧구멍에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더니 순간에 콧물이 마르고 비염이 깨끗이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윤태원 형제
(19세, 고3선교회)

“주먹만 한 물혹이 권능의 기도로 사라졌어요”

4년 전, 옆구리 쪽이 따끔거리 병원에 갔더니 초음파 검사를 하였습니다. 의사는 간 옆에 물혹이 있는데 가라앉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지켜보자고 하였습니다.

그 후 통증이 별로 없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올해 10월부터 속이 심하게 거북하고 답답하였습니다. 11월 초에는 혹이 주먹만 한 크기로 커졌으며 통증까지 동반하였지요.

저는 예전에 맹장염을 수술하지 않고도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치료받은 체험이 있기에 하나님

께 기도하여 치료받고 싶었습니다. GCN 방송(www.gcntv.org)으로 당회장님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지요. 통증이 올 때마다 ARS(자동응답서비스)를 통해 여러 번 반복해서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았습니다.

이후 배가 불거지고 요동치는 듯해서 화장실에 갔는데 액체가 왕창 쏟아졌습니다. 물혹이 사라진것입니다. 할렐루야! 배가 속꺼지니 속이 아주 편하고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권능의 기도로 치료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송병희 집사
(83세, 2대대 21교구)

2015 HAPPY WINTER MERRY CHRISTMAS
12/6 ~ 12/12

■ 우리의 열심은 ■ 하나님의 뜻
■ 일곱교회 20-24 ■ 십계명 1-3
■ 창세기 강해 66-70 ■ 순전 1-2
■ 요한일서 강해 9-15 ■ 지옥 17
■ 육체의 결여 1-5 ■ 에녹 1-4
■ 마음발을 개간하자 6-7
■ 죽은자를 위한 세례 1-2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이수진 목사)
■ 마음발을 개간하려면 (이미영 목사)
■ 신뢰 (이미경 목사)
■ 은혜 (이희선 목사)
■ 마음 7 (신동초 목사)
■ 열재앙 23 (정구영 목사)
■ 위로부터 난 지혜 1 (김수정 목사)

GCN TV설교

예능 프로그램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47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사해보기 4
- 창조와 과학 18 ■ English 13
- 내 마음의 천양 22 ■ 옛날 옛적에 3
- 모두 드려요 39 ■ 즐거운 요리 7

해외성회 및 교육

- 뉴욕 연합대성회 1
- 믿음으로 걸은 길 19
- 회상 [시조] 7

GCN HD 채널
kt olleh tv 882번

“이럴 수가! 실명된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열일곱 살 때, 저는 친구들과 싸우다가 누군가가 내리친 쇠파이프에 머리를 다쳤습니다. 그 뒤 10년 사이 왼쪽 눈에 시력을 점차 잃다가 결국 실명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시력과 관련된 핏줄들이 끊어졌고 이미 실명이 진행된 상태라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한쪽 눈으로 생활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결국 술과 도박, 여자에 빠져 방탕하게 살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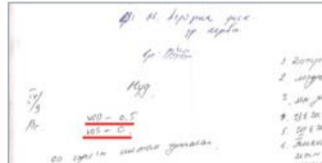
그러던 2010년 4월, 저는 한국인과 결혼한 큰딸의 초청으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해 9월, 전도를 받아 만민중앙교회에 다니며 일자리도 얻었지요. 그런데 고된 일을 하다 보니 2014년 11월에는 허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였고, 나중에는 오른쪽 다리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허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만 비자가 만료되어 아픈 몸을 이끌고 2015년 2월에 몽골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후 저는 몽골만민교회에 출석하면서 각종 예배와 다니엘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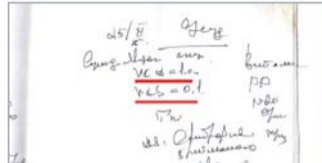
야 기도회에 참석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치료뿐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마음의 죄악을 온전히 버리기로 결단하며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하였지요.

10월 31일, 몽골만민교회 손수건 집회(행 19:11~12)에 참석하였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손수건으로 해 주시는 담임 발저릭 푸류 선교사님의 기도를 믿음으로 받았습시다. 그 뒤 허리 부위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더니 허리와 오른쪽 다리에 통증이 사라지고 다리를 잘 움직일 수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실명된 왼쪽 눈이 밝아지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독서도 할 수 있으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받기 전
우측 시력: 0.5 좌측 시력: 0



기도받은 후
우측 시력: 1.0 좌측 시력: 0.1



게게수렌 성도
(59세, 몽골만민교회)

“불의의 화재에서 저희 상점은 모두 보호받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갈급했던 저와 내내는 2009년 어느 날, TBN 러시아 방송을 통해 만민중앙교회와 이재록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교회 홈페이지(www.manmin.org)에서 틈틈이 설교 말씀을 듣고, 주일에는 러시아어 생방송 예배를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는 말씀대로 저희 삶이 변화되어 정도를 걸어가니 사업터에도 많은 축복을 받았지요. 지금은 바라바쇼바 대형 쇼핑센터에서 여러 개의 상점을 운영할 뿐 아니라 십일조도 크게 붙어났습니다. 작년 2월에는 한국 만민중앙교회에 방문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지요. 최근에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저희 가게가 위치한 쇼핑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쇼핑센터는 두 개의 큰 건물로 되어 있으며 건물 사이로 작은 다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큰 불은 삼시간

에 퍼져서 2동 건물이 전소하다시피 되었고, 그 중 150개의 점포는 모조리 타버렸지요. 이 불길은 저희 상점들이 위치한 1동 건물에까지 번졌습니다. 저희는 너무 긴박한 상황이라 미처 서울에 연락하여 기도를 요청할 겨를도 없이, 그저 “아버지 하나님, 목자의 공간 안에서 지켜주세요.”라고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간에 뻗어오는 화염 속에서도 저희 상점들은 전혀 화재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열된 상품들도 무엇 하나 상한 것 없이 완벽하게 보호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가난, 질병, 재앙을 만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소망대로 그 공간 안에 우크라이나에서도 온전히 보호받은 것입니다. 귀한 성령의 복음으로 저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안톤 배구 성도
(40세, 우크라이나 하르코프)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으나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9월 21일, 운전 중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다가 대형탑 차에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튕겨져 나간 제 차는 중앙 분리대 턱에 심하게 부딪혀 전복되었습니다. 깨진 창문으로 나와 제 차를 보니 여러 군데가 깨져 있었고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밖으로 튕겨져 나와 있었지요.

그러나 제 몸은 어느 한 군데도 상하지 않았고, 옷과 신발에서도 사고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한 저는 ARS(자동응답서비스, 02-830-5320)를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뒤 CT와 MRI 촬영 결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상이

였지요. 할렐루야!
이 사건은 저의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내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했다는 점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큰 사고에도 전혀 다치지 않게 지켜주시고 변화의 기회로 삼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김엘리아 형제
(28세, 대전만민교회)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서량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산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원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2층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례면 해례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안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김천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